

【연구논문】

‘슬픈 아일랜드’를 넘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환유적 아일랜드성*

강우성

(서울대)

I. 이산(離散)문학으로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

영미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아일랜드계 미국문학(Irish-American Literature)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¹⁾ 미국문학의 하위 장르로 곧잘 분류되는 속민문학(屬民文學 ethnic literature)에 포함할 수 있지만,²⁾ 언어 및 인종·지역적 지표가 두드러진 다른 속민문학들과 중요한 차이를 지닐뿐더러

* 이 논문은 2014년도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2014S1A5A2A03064994)

- 1) 미국문학 내의 대표적 소수문학인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미국문학, 유대계 미국문학은 차치하더라도, 아일랜드 문학(Irish Literature)이나 앵글로 아이리쉬 문학(Anglo-Irish Literature) 분야의 연구와 비교해 보아도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이라는 범주는 미국문학 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성공적으로 미국문화의 주류에 편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학계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아일랜드 연구는 아일랜드 국적의 작가들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Riss4u>의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을 독자적으로 다룬 사례는 전무하다.
- 2) ‘속민문학’이라는 범주는 필자의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종족문학 내지는 민족문학으로 번역되어 쓰이는 사례가 많은데, 지역, 인종, 문화, 국가적 정체성을 모두 표시하는 인적·지역적 출신 개념으로 사용되며 집단적 소속감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속민성’(ethnicity)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2 강우성

일찍이 본격 미국문학의 일부로 포함되었기에 그 독자성을 충분히 인정 받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앵글로 아이리쉬 문학’(Anglo-Irish Literature)이라는 명칭도 가능하지만 이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이기에 영문학과 아일랜드문학의 속민적 차별성과 역사적 경험을 무화하기 십상이다. 반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을 미국문학 내에서 아일랜드적 ‘정체성’(identity)이 두드러진 문학으로 한정하는 일도 수월하지는 않다. 정체성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이념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속민문학들과 달리 아일랜드적 정체성을 표나게 부각하는 문학작품들을 언어와 인종이 동일한 미국문학의 독자적 분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까닭이다. 나아가 어떤 식으로든 아일랜드계 미국문학만의 정체성을 설정 하더라도 그 역사적 변천, 특히 그 정체성의 희석화 내지는 미국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³⁾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국가적 혹은 국민적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되기 쉬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특성을 영토적·문화적 이념형에 국한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이민문학의 일부이자 문화적 디아스포라(diaspora)의 측면에서 미국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가 19세기 중엽 이른바 대기근(The Great Famine 1845-1852)을 겪는 과정에서 신대륙으로 집단이주하게 된 이민의 역사적 의미와 미국사회에서의 이산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대서양 양편의 사정을 고려해야만 역사적 변수와 마주한 ‘아일랜드성’의 변천 양상, 특히 속민적 정체성의 약화과정을 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의의도 한층 더 분명해

3) 『미국문학에서 아일랜드적 정체성의 성립』(*The Construction of Irish Identity in American Literature*)의 저자인 다우드(Christopher Dowd)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출발한다. 아일랜드성(Irishness)을 어떻게 규정하더라도—다우드는 이른바 가톨릭적 특성(Catholic Irishness)에 주목한다—미국사회의 주류문화에 이미 동화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 개념은 불가피하게도 “탈속민화된”(de-ethnicized)된 성격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owd 4)

질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기근으로 인한 신대륙으로의 이주는 속민적 정체성을 뜻하는 ‘아일랜드성’의 함의에 증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대영제국에 반대했던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적 성격에 더해 미국사회의 하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반봉건성이 미국의 자본가 계급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급진적 전통, 그리고 아일랜드 특유의 강한 가톨릭주의가 결합한 전근대적 민족주의의 유제(遺制)도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앵글로-색슨계 백인 중심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지배적인 미국 주류 사회에서 아일랜드계 이민들의 정착, 생존, 동화, 편입 과정은 대서양 이주 이전 아일랜드성의 외연적 확장과 내적 혼종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Fanning 1). 더구나 정착 이후 미국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하층계급의 급진성 및 가톨릭주의에 바탕을 둔 순혈적 아일랜드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다른 속민집단과 달리 드물게 주류문화의 핵심에 편입됨으로써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더 이상 “분투하는 소수자”(struggling minority)의 지표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Dowd 5).

따라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 범주는 기존의 아일랜드성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사회 자체의 정체성 논리도 다시 들여다 볼 여지를 남긴다. 요컨대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미국문학의 핵심을 앵글로-색슨계 백인 프로테스탄트 이민자들이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해 이룩한 문학으로 규정하는 관행을 재고할 근거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이민 이후에도 여전히 ‘소수문학’(minority literatures)으로 남아 있는 다른 속민문학들에 비해 이산과 동화의 성공적 과정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미국사회 백인 집단으로의 인정욕망을 담은 이른바 ‘미국화’(Americanization) 충동과 1차 대전 이후 ‘켈트문화 부활’(Celtic Revival)에서 나타났듯 아일랜드적 순수성을 고수하려는 ‘자국화’(ethnization) 충동이 길항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이 상충된 결합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여 미국 백인 주류문화의

4 강우성

중심에 편입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더 이상 이념적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자국화 충동은 미국 주류문화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그 이산적 기원을 부각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아일랜드에서의 지역적 차이(북동부의 도시적 얼스터와 서남부의 농본적 먼스터)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이민들이 대부분 하층 계급으로 출발했다는 사실과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종교적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했다는 점은 미국 주류문화에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계기로 기능했다. 보스턴과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게토화된 주거지로 집단 이주한 농본적·가톨릭적 아일랜드 이민들의 지난한 미국화 과정을 기록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미국적 ‘성공서사’(success story)의 모범사례인 동시에 미국문화가 다양한 이민자들이 만들어 낸 이질적 이산 경험의 혼종성(hybridity)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시한다.

이런 점에서 신대륙으로의 아일랜드 디아스포라는 단일한 ‘아일랜드적 정체성’을 성립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대영제국의 압제 및 그들과 연합한 아일랜드 지주들의 계급적 착취에 반대하는 반봉건/반식민 입장에 민족주의 정서가 녹아 든 이른바 ‘슬픈 아일랜드’(sorrowful Ireland)라는 신화적 통념을 배경한다.⁴⁾ 집단이주와 정착 과정에 얽힌 복합적 역사를 감안하면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형성과 미국화 과정의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아일랜드 미국문학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짧게 일별하고 19세기 중엽의 대기근과 집단이주를 둘러싼 이산문학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최초 성취인 턴(Finley Peter Dunne)과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사례를 통해 아일랜드계 이산문학의 미국화 과정을 간략하

4) ‘슬픈 아일랜드’라는 표현은 아일랜드의 고난에 찬 역사적 경험과 비극적 운명을 지칭하는 아일랜드적 정서를 일컫는다. 역사학자 박지향 교수가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학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다룬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게 정리한다. 본론의 마지막이자 핵심 부분에서는 아일랜드계 작가 코맥 맥카시(Cormac McCarthy)의 『더 로드』(*The Road* 2006)에 각인된 고딕 서사에 주목하여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이산문화적 특성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문학 자체의 이산성과 혼종성을 아일랜드계 미국문학 특유의 ‘환유적 아일랜드성’(metonymic Irishness)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관심사이다.⁵⁾

II. 대기근과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성립

역사적 양상으로만 보면, 대기근과 집단이주를 둘러싼 초기 아일랜드 디아스포라의 서사는 17세기 중엽 대서양을 건너 북미지역으로 이주한 앵글로-색슨계 청교도들의 이주서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청교도들에 가해진 종교적 박해와 유사하게 이민자들이 이주 이전 아일랜드 본토에서 겪은 핍박과 궁핍의 경험이 두드러지고 이주의 불가피함이 제시되며, 이주과정의 고난에 찬 여정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된다(Miller 280-344). 신대륙으로의 이주가 종교적 사명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차치하면, 청교도들과 아일랜드의 이주서사의 가장 큰 차이는 떠난 지역에 대한 상반된 정서적 태도이다. 청교도들이 구세계의 표상인 영국문화와의 완전한 단절에 비중을 두었다면, 초기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토착문화에 대해 이상화된 향수에 집착한다. 청교도들의 이주가 종교개혁

5) 속민적 정체성과 달리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아일랜드성’을 ‘환유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열거한 작품들이 암시하는 아일랜드와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의미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라진 속민적 정체성을 알레고리로 표상하거나 그 정체성의 표지로 인물들의 운명을 설명하지 않는다. 나중에 부연하겠지만,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에서 확인 가능한 ‘아일랜드성’은 미국사회 내부에서 속민성이 문제되는 지점에 유명처럼 귀환하는 우연적 표상이거나 미국문화 자체의 디아스포라적 기원을 상기시키는 흔적이라는 점에 있다. 아일랜드의 속민적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미국문화의 맥락에서 이산성의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기의적 연관인 아닌 기표적 인접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의 사명을 자임했던 자발적 결단이었던데 반해 아일랜드 이주민들의 경우는 저주받은 박탈감에 휩싸인 “떠밀린 이민”(reluctant immigration)이었기 때문이다(Miller 291). 1845년에서 1855년까지 대기근을 피해 이주의 길에 나선 아일랜드 이민들이 대략 1백 8십만 명에 달했고, 그 이후 2차 이민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3백만 명에 육박했으며, 1900년까지 이주민의 합계는 아일랜드 거주민의 수를 압도했다(Miller 346; Dowd 8). 자발적 동기와 이념적 지향 없이 떠밀려오게 됨으로써 고통으로 점철된 이주와 정착의 경험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와 박탈감에 지배된다. 게다가 터전을 뺏긴 그들이 생존해야 했던 곳은 개척이 가능한 황무지가 아니라 한창 산업화 와중에 있는 대도시의 누추한 게토였다.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던 이들에게 토착문화에 대한 집단적 애착은 산업화된 대도시의 이질성을 감당하기 위한 정서적 근거였으며, 이로 인해 문학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신화적 수호신인 오시안(Ossian) 전통을 상기하거나 아일랜드 특유의 ‘슬픈 정서’를 드러낸 시가들이 두드러졌다.⁶⁾

이들 초기 작품들은 소재나 정서의 측면에서 매우 낭만적이자 자기폐쇄적인 집단성이 강했고, 주로 같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동질성

6) 북부출신 얼스터 정착민들의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는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아일랜드 시가』(*Irish Melodies* 1800)가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며, 오웬슨(Sidney Owenson)의 『강건한 아일랜드 소녀』(*The Wild Irish Girl* 1807)나 존 버넘(John Banim)의 『오하라 가문의 일대기』(*Tales of the O'Hara Family* 1825)에서는 민족주의 정서가 강하게 배어 있는 인물들이 상찬된다. 특히 초창기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거론되는 옛지워쓰(Maria Edgeworth)의 『레크렌트 성』(*Castle Rackrent* 1800) 같은 소설은 고딕 기법을 차용하여 기존 이전 아일랜드 사회에서 영국의 국교도와 귀화한 아일랜드계 지주들이 행한 박해를 고발하고 가톨릭 농민들에게 공감하는 피카레스크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시에 서남부(코크와 먼스터) 출신의 하층계급 이민자들도 대거 건너와 기존의 서사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먼스터 출신으로 남부 아일랜드 농촌의 목가적 삶을 노래한 그리핀(Gerald Griffin)이나 가톨릭 성향의 농부 출신으로 신대륙에서 농본적 삶의 이상을 형성화한 칼튼(William Carleton)이 대표적 작가로서, 후자는 1830년에 『아일랜드 농민의 성향과 이야기들』(*Traits and Stories of Irish Peasantry*)을 펴내어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지닌 농민적 근면성을 찬양하기도 했다.

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주 이후 19세기 말엽까지 쓰인 작품들 대부분은 신대륙의 이질적 현실과 무관하게 이주 이전의 아일랜드 민담과 설화를 배경으로 삼았고, (제국의) 압제에 굴하지 않는 민족서사의 틀을 되풀이하였다. 이민 1, 2세대를 포함한 초기 이주민 서사의 작성자들은 자신들을 미국 작가가 아니라 여전히 아일랜드 작가로 인식했으며, 그들의 민족주의적 서사는 미국문학의 일부가 되기보다 이주민 집단의 공동체 가치를 수호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 서사들은 고국을 떠나 원치 않는 이주에 이르게 된 이주민의 애달픈 정서를 크게 부각하면서도 청교도들과 달리 속민적 정체성의 유지를 통해 신대륙 정착과정을 완수하려는 기대감도 드러낸다. 이들이 형상화했던 ‘아일랜드적인 것’의 바탕에는 두 가지 상반된 정서가 내재했다. 한편에서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아일랜드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하여 억압적 제국(영국)의 식민주의와 봉건주의가 만들어 낸 ‘희생자’로 정립한다. 영국=제국=국교회=지주세력 대 아일랜드=식민지=가톨릭=농민의 이항대립구조가 단단하게 자리한다.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희생자 담론의 이면에는 근대적 억압에 저항하는 영웅적 아일랜드 정신에 대한 비현실적 이상화가 내포되어 있다. 희생자 담론과 영웅서사의 결합은 이산문학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자 한시적 접합이었는데, 여기서 청교도들과 유사한 형태로 자신들을 “추방자”(exile)와 동일시하고 신대륙을 ‘시험무대’로 간주하는 일종의 간증 서사(conversion narrative)의 낭만화된 변형을 읽기는 어렵지 않다.

이주 이후의 이산적 서사들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끔찍한 대기근의 경험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리얼리즘적 충동들이 산업화된 대도시의 참상을 낱낱이 기록하려는 경향과 맞물리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작품들은 이전의 서사들이 보여 준 속민적 반식민주의 정서—예의 ‘슬픈 아일랜드’—와 확연하게 결별한다.⁷⁾ 아일랜드계 미국문학 작품들의 플롯은 대략 4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첫째, 아일랜드에서 겪은 극심한 대기근의 고통과 지주의

착취에 대한 퍽진한 묘사가 있다, 둘째, 이주과정의 험난한 여정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존재한다. 셋째, 산업화된 대도시에 하층계급으로 편입된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의 현실에 대한 비애감과 고발이 드러난다. 넷째, 초기 이주민들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병적 집착과 집단적 폐쇄성에 대한 자기비판이 등장한다. 희생자 정서는 계속 유지되지만 이질적 환경에서 이상적 속민성을 간직하려는 태도는 현저히 약화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려는 미국화의 욕망이 두드러진다. 이와 동시에 속민적 정체성의 핵심 근거가 아일랜드 본토에서 대도시 미국의 계토로 이전된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초엽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극명하게 표현된 가톨릭 신앙에 대한 양면적 태도가 이미 본격화되어 있다. 사회적 성공에 필요한 청교도적 가치들이 이주민들 대부분이 간직하고 있던 가톨릭 신앙과 갈등을 일으켰고, 아일랜드의 가톨릭 정서는 대도시의 비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정신적 위안의 기제인 동시에 주류 프로테스탄트 문화로의 성공적 편입을 가로막는 전근대적 장애로 인식되었다.⁸⁾

희생과 극복의 염원이 하나의 뚜렷한 이주민 서사로 성립한 이후 산업화된 대도시의 경험에 사실주의적으로 주목함으로써 미국문학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급격한 미국화의 길을 걷는다. 미국의 산업화가 가져온 엄청난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공유하게 된 아일랜드 이민 공동체는 하층 속민집단의 지위에서 미국사회 중산계층의 일부로 성공적으로 편입되고 주류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었다. 소수 속민집단의 이러한 ‘예외적’ 변신에는 물론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인종

7) ‘본격’ 미국문학의 계보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성립기를 구성하는 작가들로는 보이스(John Boyce), 퀴글리(Hugh Quigley), 맥코리(Peter McCorry), 헬파인(Charles Halpine), 오브라이언(Dillon O’Brian) 코닝엄(David Power Conyngham), 새들리어(Mary Anne Sadlier) 같은 인물들이 있다(Dowd 113-152).

8) 가톨릭 이민자들에 대한 당대 프로테스탄트 문화의 혐오와 아일랜드 가톨릭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해서는 Dowd 12-15 참조.

적·언어적 동질성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한 속민집단으로서는 ‘소수자’의 표지를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개별 존재로서는 미국문화의 차별적 구조인 언어와 인종의 지표에서 대체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란 가톨릭 전통과 정서적 거리를 두고 물질적 성공을 통해 산업화된 미국사회의 계층구조를 초월하는 일이었다. 19세기 말엽의 아일랜드계 미국문화이 하층계급에서 출발한 집단적·사회적 기원을 뒤로 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며 당대 백인 중산층의 이른바 ‘점잖은 전통’(genteel tradition)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시기 아일랜드계 미국문학 작가들이 동일한 대도시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드라이저(Theodore Dreiser)와 하웰즈(William Dean Howells)를 비롯한 당대 사실주의 흐름과 유사하면서도 사회비판보다 경제적 안정을 얻은 중산층들의 구미에 맞게 ‘켈틱 문화’의 특성을 점잖은 전통과 결합시키려 한 노력 역시 놀랄만한 현상은 아니다. 그 결과 가톨릭 정서에 대한 양면적 태도와 희생자 담론의 흐름이 당대의 사실주의 서사와 교류하여 감상주의적 문학들을 생산해냈다. 이 시기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에 표현된 사회적 서사의 근본 정서는 비자발적 이민자 특유의 집단적 분노와 패배감에 대한 비판적 태도였는바, 집단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백인 주류 문화에 개별적으로 편입하려는 미국화 열망에 대한 반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작가가 바로 던(Finley Peter Dunne)이다.

아일랜드인들이 밀집된 뉴욕과 보스턴이 아니라 중부의 시카고 지역에 정착한 아일랜드 공동체(게토)에서 살롱을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달변가이자 ‘철학박사’인 “마틴 돌리 씨”(Mr. Martin Dooley)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던의 작품들은 1899년에서 1919년에 걸쳐 모두 여덟 편의 연작으로 출판되었다. 던의 작품은 일반적 소설과 달리 돌리 씨가 당대의 구체적 현안들에 저널리즘적으로 논평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허구적 인물인 돌리 씨는 시카고 아일랜드 게토 지역의 일상사에 대해 촌철살인의 논평을 가하는 인물로서 본래는 지방색 짙은 저널리즘적 경향의 산물이지만 당시 루즈벨트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다. 던은 돌리 씨를 통해 아일랜드 이주민 문화에 깃든 낡은 잔재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그의 코스모폴리탄적 태도를 희화화하여 속민성을 버리고 미국화 과정에 나선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풍자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가령 『돌리 씨의 철학』(*Mr. Dooley's Philosophy* 1900)의 「해외에 나간 미국인들」(*Americans Abroad*) 장에서 거친 아일랜드 억양을 뽐내는 돌리 씨는 자신의 청자인 젊은 헤네시(*Mr. Hennessy*)를 향해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규범적 정서를 비판한다. 미국의 자산가인 애스터(*William Waldorf Asthor*)가 영국정부에 거액의 현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네시가 이를 미국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불평을 하자 돌리 씨는 돈에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냉소적으로 반박한다.

“돈이 있다면 어디에서라도 차지하게나. 비록 전에는 거만했지만 지금은 쇠락한 땅인 영국을 무척 싫어하지만, 난 거기서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돈을 차지할거야. 돈 문제와 관련해서라면 나는 애스터가 충성심을 바꿨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을 거야. 소화기를 들이마신 친구도 말했듯이 누구나 제 맛에 사는 거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네가 싸울 힘도 별로 없는 지친 청년이라면, 이 나라에서 사는 건 클라나 겔[미국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 결사체—인용자]의 모임에서 『성인들의 생애』[유명한 가톨릭 성인전의 하나—인용자]를 읽으려는 것과 같은 짓이지.”

“Take money annywhere ye find it. I'd take money frm England, much as I despise that formerly haughty but now dejected land, if I cud get anny from there. An' whin ye come down to it, I dinnaw as I blame Willum Waldorf Asthor fr shiftin' his allegiance. Ivry wan to his taste as th' man said whin he dhrank out iv th' fire extinguisher. It depinds on how ye feel. If ye ar-re a tired la-ad an' wan without much

fight in ye, livin' in this counthry is like thryin' to read th' Lives iv
the Saints at a meetin' iv th' Clan-na-Gael.” (Dunne 4)

둘리 씨는 미국의 부자들이 돈으로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건 그게 무슨 문제냐고 말한다. 이 발언이 애스터 같은 미국의 졸부들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부를 백안시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은 그의 풍자적 어조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어서 젊은 아일랜드계 청년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미국화의 대세에 따르지 못하는 아일랜드 특유의 ‘규범적 반물질주의’를 도마에 올린다. 동시에 역센 사투리로 이 모든 ‘삶의 지혜’를 설파함으로써 자신의 냉소적 태도를 감추려는 둘리 씨에 대해서도 작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시카고의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계토에서 살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을 대변하는 듯한 둘리 씨의 코스모폴리탄적 태도는 아일랜드의 도덕적 후진성과 ‘돈벌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세태를 동시에 꼬집지만, 작가는 이런 식의 냉소적 비판을 통해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위선 역시 놓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하층 아일랜드 정착 집단의 낡은 속민적 정서와 거리를 두면서도 물질주의적 추구를 박애주의로 포장하는 태도 역시 비판하는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한다. 던에 의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집단적 자기위로의 서사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미국문학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며, 미국문학의 일부이되 아일랜드 속민성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독특한 문학의 전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디아스포라로 시작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던에 이르러 풍자적이고 비판적 태도로 전근대적 속민 정서와 거리를 두면서도 하층민들의 사회적 열망에 공감하는 아일랜드계 속민문학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게 된다.

III. 아일랜드 정체성의 상실과 미국화의 음영

민족주의(nationalism)를 이론화한 앤더슨(Benedict Anderson)에 따르면, 소규모 집단 및 공동체를 넘어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를 구조 짓는 동인은 공동의 경험적 현실이 아니라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의 이미지다 (6). 프랑스혁명을 전후하여 서구에서 성립된 민족주의만이 이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의 국가주의—이런 명칭이 가능하다면—에 못지않게 미국 내 다양한 인종, 종족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속민성들 역시 앤더슨이 뜻한 “상상적 공동체”의 정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Dowd 9). 특히 대기근 이후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아일랜드가 뚜렷한 자기 이미지로 존재했다. 이런 상상의 이미지는 미국사회로의 강제적 편입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표상이자 허구의 산물이다.

반면 미국 주류 백인의 프로테스탄트 국가주의는 흑인과 아시아계 이민자들같은 소수자 집단을 인종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을 지리적·국가적 기원으로 다시 구분하는 차별적 지배논리를 주조해 낸다. 그 결과 소수 속민집단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사회에 동화(assimilation)하라는 모순된 과제가 부여된다. 속민성이 미국화의 표상인 동시에 하위 시민권으로 고착되는 이중의 표지로 기능하는 셈이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경우, 인종과 언어가 갖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속민집단과 마찬가지로 소수자집단의 처우를 받는 상황에서 출발한다(Kenny 365). 문화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인물들, 사회적 우범자들, 민족적 열등족속 등의 부정적 속민의 표식이 아일랜드계 미국인에게 따라 붙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성(姓)에 독특하게 각인된 “O”나 “Mc” 혹은 “Mac”이라는 꼬리표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문제적 집단으로 호명하게 만든다 (Dowd 14-15).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가

톨릭 정서를 고집하는 폐쇄성이 부각되어 유대인이나 동유럽 출신자들과 함께 이교도 성향의 집단으로 적대시되기도 했다(Miller 327).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미국문화의 ‘분투하는 소수자’의 대표적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백인문화의 ‘구별짓기’(distinction)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자주 동원되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담긴 대표적 이미지로는 앞서 거론했던 속민적 지표에 더해 가난, 미숙련, 절제력의 결핍, 가톨릭 정서, 집단주의,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부적응자의 이미지를 꼽을 수 있다(Kenny 372). “그[아일랜드 이민자]들은 난폭하고 범죄나 알콜 중독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간주되었고, 미국의 진보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태곳적 정취를 간직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중산층의 이상과 지도력에 반대하는 듯한”(Miller 327) 모습으로 여겨졌다.⁹⁾ 백인 주류문화는 아일랜드인의 ‘상상된 이미지’를 문명화에 역행하는 문제적 집단의 상징으로 주조했고 이를 통해 미국문화의 인종주의를 감추는 안전판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속민집단과 분리시켜 공포의 대상으로 억압한다. 이들이 다른 소수 속민집단보다 더 위협적이었던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피부색과 언어에 있어서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을 백인 주류 사회의 인물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Wieck 59; Dowd 71). 외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에 잠재적으로 더 불순한 존재로 표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적 이미지’

9) 주지하다시피, 미국문화의 반아일랜드 정서는 아일랜드 이민자 집단에 내재한 속성으로부터 추론된 것이 아니라 미국 주류 백인들의 순수 인종적 관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성된 거울이미지에 가까웠다. 바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민 첫 세대가 당시의 백인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그들만의 독자적 공동체를 이루고 외부세력에 배타적이며 속민적 문화를 고수하려했던 집단적 폐쇄성의 표상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을 지칭했던 당시의 대표적 상징이 바로 마크 트웨인(Mark Twain) 소설의 반항적 주인공 ‘헉 핀’(Huck Finn)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Finn이라는 성이 아일랜드계 하층민에서 유래함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는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톰 소여(Tom Sawyer)의 백인성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Dowd 63-79 참조.

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일랜드계 이민자 집단의 미국화과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는 언어와 피부색이 주는 이점을 활용하여 빠르게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고 특유의 강력한 생존력으로 미국적 개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분투하는 ‘모범적 소수’에서 성공한 다수의 사례로 탈바꿈한 것이다.

프레데릭(Harold Frederic)의 『쉴론 웨어의 몰락』(*The Damnation of Theron Ware*)이 극명하게 보여주었듯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미국화 과정은 서부로의 진출이 본격화된 시점과 발을 맞추었고, 이때 규범적 사회를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허 핀(Huck Finn) 식 아일랜드인의 이미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적 개인주의의 핵심 상징이 되었다(Dowd 90). 그러나 이러한 미국화 과정이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다우드에 따르면, “대기근으로 인한 이주 이래로 아일랜드성은 공통의 역사를 뜻하는 정체성에서 오직 모호하고 때로는 피상적이지만 문화적 동질성을 함축하는 정체성으로 탈바꿈했다”(113). 그리하여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인에도 미달하고 미국인에도 미달하는”(deficiently Irish and deficiently American 113) 독특한 존재의 이중성에 처한 아일랜드 속민자 집단은 소수의 지위에서는 벗어났으나 다수의 일원으로는 오직 부정적으로만 편입되는 새로운 속민성을 얻게 된다.

20세기 초반의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이러한 탈사회적 이미지를 오히려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반사회적 속민성을 탈사회적 ‘문제적 개인’의 표상으로 바꾼 셈인데, 이 변화에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며 그들의 저항적 성격은 전근대성의 표상에서 가장 모더니스트적 특성으로 변모한다. 특히 아일랜드계 혈통이면서 주류 작가의 반열에 오른 피츠제럴드는 3세대 아일랜드계 미국인 인물들을 “근대성과 인간적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시켰고,” 나아가 “전후 세계의 사회문화적 트라우마를 묘사하

는 데 아일랜드의 언어를 활용”했다(Dowd 114). 물론 소수의 성공사례를 예외로 하면 대부분의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궁핍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감성구조의 변화는 이들이 경제공황 이후 미국의 번영기에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¹⁰⁾ 이런 점에서 피츠제랄드의 『낙원의 이편』(*This Side of Paradise* 1920)은 사회적 성공을 거부하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를 미국적 개인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매우 징후적이다. 이 작품을 단순히 사회적 성공과 미국화를 거부하는 ‘반성장소설’(anti-Bildungsroman)의 사례나 이른바 1920년대 재즈시대(Jazz Age)의 반항적 개인의 낭만적 형상화로만 해석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은 이민자의 이산적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를 근대 미국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향한 시도와 타협시키고자 했던 인물의 매우 흥미로운 도전 사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사실 피츠제랄드를 논하면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패닝(Charles Fanning)은 피츠제랄드가 자신의 작가이력을 쌓게 된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대체로 (아일랜드의) 민족적 차원을 허구로 만들 가능성을 무시했기”(248)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만일 피츠제랄드의 아일랜드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속민적 정체성의 구현 여부가 아니라 바로 그 정체성에 던진 진지한 의문 때문일 것이다. 이점에서 그의 작품에서 적극적 의미의 강한 아일랜드성이 미약하고 부재한다는 점이야말로 그의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우드가 지적하듯이, “자신 있게 아일랜드성

10) 2015년에 개봉한 존 크로울리(John Crowley) 감독의 영화 『브루클린』(*Brooklyn*)이 선명하게 극화했듯이, 1950년대에도 상당수의 아일랜드계 이민자 집단은 하층계급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타 속민집단들—예컨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Italian-American)—과 달리 자신들의 ‘소수성’을 표방하기보다 뉴욕 양키즈(New York Yankees)를 응원하고 중산층 문화를 지향하며 기술자로 계층상승하여 미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통하기를 더 염원한다.

을 찬양하는 소설을 쓰는 일은 그에게 불가능했을 터이지만, 아일랜드성에 관해 진솔하게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소설을 쓰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136).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제거하고 『낙원의 이편』을 성장서사의 모델에 입각해 읽게 되면 주인공 애머리(Amory Blaine)의 지난한 행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실존적 인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애머리의 독특성은 그가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본질적 정체성을 상정하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돈키호테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 즉 자신이 처한 각기 다른 이질적 환경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그러나 줄기차게 ‘미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찾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나온다. 따라서 애머리에게 ‘프린스턴 대학’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꿈은 실패한 이상과 흠모하는 연인을 얻지 못한 열패감을 보상해줄 사회적 성공의 표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애머리는 상실된 연인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금주령(Prohibition Era 1920-1933) 시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미국적 ‘성공신화’의 희생자 개츠비(Gatsby)와 길을 달리 한다. 그는 앞선 아일랜드 이민 세대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성공신화를 적극적으로 체현하지 않으며, 이 모든 세속적 가치들이 자기 내부에서 아직 선명하지 않은 채로 들끓고 있는 어떤 열망에 대한 “보잘 것 없는 대체물”(a poor substitute 254)일 뿐임을 깨닫는다.

애머리는 그들[이전 세대들]이 안타까웠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여전히 후회가 없었다. 예술, 정치, 종교, 그 어떤 것이 자신의 매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자신이 모든 히스테리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받아들일만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유량하고, 성장하고, 반항하며, 수많은 밤을 깊게 잠들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의 생각은 아직 들끓었고 기억의 고통과 잃어버린 청춘의 회한도 여전히 있었다. 그렇지만

환멸의 물질은 그의 영혼에 책임과 삶에 대한 사랑, 오래된 야망과 이루지 못한 꿈들의 아련한 들썩거림이라는 보증금을 남겼다.

Amory, sorry for them, was still not sorry for himself—art, politics, religion, whatever his medium should be, he knew he was safe now, free from all hysteria—he could accept what was acceptable, roam, grow, rebel, sleep deep through many nights...There was no God in his heart, he knew; his ideas were still in riot; there was ever the pain of memory; the regret for his lost youth—yet the waters of disillusion had left a deposit on his soul, responsibility and a love of life, the faint stirring of old ambitions and unrealized dreams. (Fitzgerald 253-254)

애머리는 자신에게 남은 회한이 세속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한 열패감이 아니라고 담담히 고백한다.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을 버린 로살린드(Rosalind)는 그에게 더 이상 평범한 아일랜드인이 미국사회 주류문화의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했던 세속적 매개체를 상징하지 못한다. 대신 작가가 작품 내내 이기주의자(egotist)라고 불렀던 애머리는 속민적 정체성과 사회적 성공의 미망을 버리고 더 철저한 개인으로 변모한다. 그의 ‘성장’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매개수단으로 구현되지 않고 미국인으로서의 인격적 완성이라는 도덕적 성장의 길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일랜드 애국자가 되는 일에 회의적이었고 아일랜드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평범해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다”(He was rather skeptical about being an Irish patriot—he suspected that being Irish was being somewhat common. Fitzgerald 30-31)고 되 뇌이며, 소수자를 계토화하여 주류문화를 향한 열망을 부추기는 미국화의 미망이 아일랜드 이민자에게 현실적 꿈이 될 수 없음도 자각한다. 그는 속민적 정체성을 간직한 소수자로 남거나 사회적 성공을 이룬 다수의 일부가 되는 길 모두를 거부하고 오롯한 미국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표상한다.

이렇듯 애머리의 독특성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그에게 부여되었던 소

수자의 열망 자체가 애초부터 허구였을 가능성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속민집단을 소수로 낙인찍는 동시에 그 집단의 개인을 이러한 미망으로 내모는 주류문화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자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에 있다. 깨달음 이전의 그는 낡은 아일랜드 전통의 낭만적 평범성과 거리를 두면서도 역설적으로 아일랜드의 문화적 댄디인 것처럼 행동하며 의식적으로 성공을 갈망하는 속민적 소수자의 ‘퍼소나’를 연기했다. 그러나 이상적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완성을 위한 매개체처럼 추구했던 로살린드의 배신과 삶의 멘토로 삼았던 다아시(Darcy)의 죽음을 겪은 애머리는 자신이 이제껏 추구했던 정체성의 표상들이 외적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Fitzgerald 233) 시작됨을 깨닫는다. 미국에 사는 성공한 ‘아일랜드인’이나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적 미국인으로 자각하는 것이다.

애머리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새로운 인물유형이다. 첫째, 미국식 자수성가라는 세속적 이상이 더 이상 이산적 속민집단의 구성원에게 활용 가능한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주류문화가 요구하는 소수자의 역할을 ‘수행’의 논리로 뒤집는 근대적 아이러니스트인 동시에 어떤 형태의 ‘정체성 정치’도 거부하는 철저히 개인주의적 인물이다. 둘째, 미국적 성공의 신화와 아일랜드 속민적 정체성의 추구가 모두 본질주의적 환상의 산물임을 가차 없이 폭로한다. 그는 미국의 소수문학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동화’의 논리가 억압적 굴레이며 궁극적 지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피츠제럴드의 『낙원의 이편』은 이산문학에서 시작된 아일랜드성의 속민적 정체성 신화가 그 소수성을 탈각하고 주류 미국문화의 일부로 동화되는 과정의 문제성을 탁월하게 극화한다.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1925)가 사회적 성공의 미망에 갇힌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근원적 미국의 꿈을 망각해 온 미국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정체성 정치에 무감각하다면(An 196-200), 『낙원의 이편』은 대도시 중심

의 산업화와 미국식 자수성가의 이미지가 빚어낸 ‘정체성의 정치’를 해체하는 주인공을 통해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이 다양한 소수문학들 중 하나가 아니라 미국문학 자체를 이산문학으로 재정립할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을 극화한다.¹¹⁾

IV. 환유적 아일랜드성과 아일랜드 미국문학의 미국성

아일랜드적 정체성이 속민적 의미를 대부분 상실하고 미국화된 시대에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가능성을 논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인종적으로는 아시아계나 라틴계 이민자 집단과 구

11)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속민적 정체성이 더 이상 문제적이지 않음은 ‘상상된 이미지’로서의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인종적 표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는 주류의 표상으로 인식된다는 역설이 잘 설명해준다. 미국화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에게는 이제 ‘아일랜드적 정체성’이 아니라 ‘백인성’이 문제다. 물론 아일랜드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 “공유된 억압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낭만화된 서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Eagan 29), 사실 인종적 소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일랜드적 정체성에는 민족적 범주와 인종적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양자 간에 존재한 역사적 차원의 ‘적대’를 감추는 기제가 작동한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속민적 예외성이 실은 주류문화가 지닌 인종적 배타성의 간접적 수혜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아일랜드 이민자집단의 중산층으로의 계급적 편입과정에는 인종적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미국화과정의 어두운 이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인종적—민족적이 아닌—아일랜드성을 대표하는 집단이 바로 아일랜드 가톨릭 공동체이다. 패럴(James T. Farrell)은 이 역설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며 애머리에 버금가는 ‘반성장’의 주인공을 창조한다. “정신에 대한 경멸, 이성과 사유에 대한 경멸이 패럴의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다”(Branch 103).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는 속민적 트라우마의 희생자를 북부의 대도시가 아닌 남부의 대농장 지역에서도 맞볼 수 있는데, 미첼(Margaret Mitchell)의 1936년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가 그 사례이다. 남북전쟁의 여파를 맞이한 남부에서 오히려(Scarlet O'Hara)는 자신의 속민적 아일랜드성을 미국적 인종서사의 틀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생존한다. 미첼은 아일랜드계 이주민 주인공들을 과거의 한 시점, 즉 상상된 장소로 돌려보냄으로써 아일랜드성의 지표를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인종적 표식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일종의 보존 가치 있는 소수자 유산으로 만들어 버린다.

별되고, 가톨릭 정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정체성이 두드러진 ‘유대계 미국인’ 집단과도 다르다. 반면 시민권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앵글로 색슨계와 차별된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속민적 지표가 미국 시민권의 중요한 표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지만,¹²⁾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여전히 반사회적 성향이 큰 ‘이등 시민’에 가깝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문화에서 ‘아일랜드성’을 규정하는 작업에는 본질론의 위험을 피하는 일 뿐만 아니라 주류집단과의 ‘변별적 차이’를 통해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일을 피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어떤 면에서 남북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 계층상승의 성공적 사례에 포함된 이후, 재즈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속민적 표지의 의미를 거의 탈각해버린 ‘아일랜드성’을 아일랜드계 미국작가들만의 이산문학성이나 소수자성으로 표상하는 일은 불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산문학의 일환으로서 ‘조국’과의 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미국화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독자적 위상을 탐구하는 일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듯도 하다.

그러나 현대화된 ‘아일랜드성’을 주장하거나 아일랜드계 미국문학만의 독자적 계보를 찾는 작업보다 다양한 속민집단이 정착과 동화를 거쳐 미국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는 과정의 예시와 이를 통해 미국문화 자체의 속민적·이산적 형성과정 자체를 규명할 실마리를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에서 찾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우드가 일갈하듯이,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반사회적 속민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미국적 가치의 핵심부를 구현하는 세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어떻게 [속민성이] 부상하는 미국 국가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해 볼 리트머스 시험지로 기능하며, 그런 측면에서 “아일랜드성의 역사는 곧 미국성의 역사이자 미합중국 국민 정체성의 발전사”(15)이기도 하다. 좀처럼

12) “현재의 미국인들은 속민성을 자신들로 하여금 동질화에 저항하게 도와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Dowd 10).

속민성의 하이픈이 붙은 미국인으로 표상되지 않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남부 지역을 작품의 무대로 삼는 대표적 작가인 맥카시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런 역설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미국문화의 일부로 흡수되고 변형되어 간접적이고 환유적 형태로 잠재된 아일랜드적 상상력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작가가 시도하는 미국문화에 대한 비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맥카시가 환유하는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을 ‘비가시적 가시성’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의 소설은 상투화된 아일랜드적 정체성과 연결된 이미지—반사회적 이방인—와 정형화된 장르규범—고딕전통—을 새로운 맥락에서 활용하여, 속민성의 표지들을 인종주의의 복면으로 삼아 온 미국문화의 ‘식인성’을 비판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산업자본주의 국면에서 고착된 부정적 ‘아일랜드성’은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를 필두로 한 미국사회의 변화 및 속민집단의 성공적 동화를 통해 낡은 가시적 표지로 퇴출되었다. 특히 남부를 무대로 활동하는 20세기 중엽 이후의 아일랜드계 작가들—대표적으로 미첼, 오코너(Flannery O’Connor)와 맥카시—에게서 아일랜드적 기원이나 정서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이들을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이라는 범주로 분류하기도 쉽지 않다(Casey and Rhodes 661). ‘아일랜드계’라는 명칭은 작가 개인의 신원적 기원을 지칭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를 비롯한 인종적 ‘모범 소수자성’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언어와 인종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주류의 일원이 된 아일랜드성은 이제 미국적 정체성에서 더 이상 식별 불가능한 비가시적 요소가 되었다. 작가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예컨대 오코너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꺼려했으며, 미국 내 반가톨릭 정서를 부각시키는 목적 이외에는 명시적으로 아일랜드적 요소를 작품에 개입시키지 않았다.¹³⁾ 따라서 아일랜드계 미국작가들의 작품에

13) 미국 남부문학에서 아일랜드성의 종교적 표지화에 대해서는 Bryan Giemza 참조.

아일랜드성의 자취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따지기보다 남부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작업에서 우연적 방식으로 환유된 아일랜드적 지표들이 미국문학의 일부로 어떻게 미국사회의 비판에 활용되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20세기 후반,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남부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아일랜드성의 자취는 매우 희박해졌지만,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문제 및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이산’의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 ‘지역 작가들’(local writers)의 관점에 의해 새로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국이라는 추상적 단위가 아니라 ‘남부’라는 특정 지역의 역사성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는 것이다. 이때 떠나온 조국의 정체성과 새로운 국가의 시민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존의 이산 개념이 아니라 현대적 삶의 조건 자체를 부단한 이산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포스트 식민주의적 이산(postcolonial diaspora)이라는 범주가 의미를 갖는다. 포스트식민주의적 이산이란 “인종의 문제를 [정착 국가 내부의] 계급적, 속민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인종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종을 문제시하는 관점”(Ryan 1)을 뜻하는 동시에, 한 국가 내부의 지역적 식민화 과정에도 주목하는 관점이다. 아일랜드계 미국 남부작가들의 작품에서 이산과 미국화 과정의 흔적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소수자성으로 출발한 아일랜드성이 인종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사회 내부의 이산적 식민화에 대한 진단으로 변용되는 과정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작품에 우연적인 유행성의 흔적으로 등장하는 환유적 아일랜드성의 자취야말로 이산으로 탄생한 미국문명이 어떻게 인종과 속민적 표지들을 비가시의 영역에 억압하는 동시에 ‘정체성 정치’에 활용함으로써 현존하는 인종차별구조를 유지하고 ‘포함을 통한 배제’(exclusion by inclusion)로 작동하는 ‘속민성 정치’(politics of ethnicity)를 시행하는지 판별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맥카시와 아일랜드 및 아일랜드계 미국문학과의 연관성은 여러 평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¹⁴⁾ 한 평자는 “맥카시 자신의 자기형성과 『더

로드』의 탄생에 아일랜드라는 지역의 깊은 연관성”(Cooper 553)이라고 요약하며 그의 아일랜드성을 부각시킨다. 맥카시의 고딕적 ‘재난의 상상력’이 발휘된 『더 로드』는 ‘슬픈 아일랜드’를 은유적으로 연상시키는 남부지역을 무대로 하여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알레고리적 비판을 통해 현대 미국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 로드』가 후기목시록적 비전을 통해 재난과 폭력의 결과 무참하게 망가진 자본주의 문명 자체의 문제를 ‘포스트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¹⁵⁾ 『더 로드』에 그려진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그 재앙적 결과는 아일랜드 민족이 겪었던 제국의 수탈과 역사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키고,¹⁶⁾ 이러한 재난에 맞선 아버지와 아들의 생존 싸움은 제국의 폭력에 신음하였던 아일랜드의 역사적 고난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키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남부를 대기근 시기의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파악하거나 이 부자를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알레고리로 보기는 어렵다. 황폐화된 남부는 재해의 원인이 불분명하며, 아버지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민의 뿌리를 지

- 14) 맥카시가 『더 로드』를 아일랜드에서 집필했다는 사실, 『노인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No Country for Old Men*)가 예이츠 및 베케트의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 서부 삼부작에 나타나는 켈틱 민담과 전설의 모티프들, 가톨릭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사실들이 거론된다. 리디아 쿠퍼는 아일랜드의 영향력에 더해 『더 로드』에 등장하는 고딕적 요소들의 존재를 특히 영국에 정착한 ‘앵글로 아이리쉬’(Anglo-Irish) 문학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Cooper 552-53)
- 15) 맥카시의 재난의 상상력에 내재된 탈식민적(postcolonial) 정서가 특정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각 국가 내부의 재식민화를 추동하는 자본주의 문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 논자로는 Mullins, Schleusener, Hoberek, Noble 등이 있다.
- 16) 소설은 이미 재앙이 벌어진 이후(after)에 시작되고 중반 이후까지도 구체적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전쟁이나 핵무기 같은 인간의 초해한 사건을 원인으로 보거나 자본주의가 초래한 자연 재앙에서 근원을 찾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작품에서 분명히 암시하듯이, 미국의 남부지역이 배경이며 재앙이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미국적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소설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Schleusener 3면,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Kunsu 69면 참조.

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미국 남부의 중산계층 남성성을 형상화하는 전형일 뿐이다(Elmore & Elmore 136-7). 『더 로드』에서 아일랜드 주제는 어떤 형태로든 작품의 직접적 의미화의 계기로 표상되지 않는다. 오로지 작가와 아일랜드의 연관성, 앵글로 아이리쉬 문학 특유의 고딕적 요소, 그리고 놀랍도록 시적인 문체를 통해 환유적으로 유추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인물이 재해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설정이고, 북동부의 대도시가 아니라 황폐해진 미국의 남부라는 작품의 지리적 배경만이 대기근 시기의 아일랜드 영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킨다.¹⁷⁾

땅은 골이 파이고 침식되고 황량했다. 도랑의 물에는 죽은 생물들의 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익명의 쓰레기 더미들. 페인트가 벗겨나간 들판의 농가들. 들뜬 채 벽의 못에서 떨어져 나온 물막이 판자들. 그 모든 것이 그림자도 없고 특색도 없었다. 길은 죽은 칩덩굴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다. 죽은 갈대가 물을 덮고 있는 늪. 들판 가장자리 너머로 땅과 하늘을 가릴 것 없이 침울한 아지랑이가 덮여 있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수포를 머리에 두르고 계속 걸었다. 젖은 눈이 식식 소리를 내며 비닐에 달라붙었다.

The land was gullied and eroded and barren. The bones of dead creatures sprawled in the washes. Middens of anonymous trash. Farmhouses in the fields scoured of their paint and the clapboards spooned and sprung from the wallstuds. All of it shadowless and without feature. The road descended through a jungle of dead kudzu. A marsh where the dead reeds lay over the water. Beyond the edge of the fields the sullen haze hung over earth and sky alike. By late afternoon it had begun to snow and they went on with the tarp over them and the wet snow hissing on the plastic. (McCarthy 177-78)

17) 1840년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아일랜드 대기근의 참혹성에 대한 펴진한 묘사는 Miller 참조.

자연재해보다는 환경재앙의 결과로 보이는 이 황폐한 땅에서 부자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물린스(Matthew Mullins)가 지적하듯이, “굶주림은 이 소설의 각 인물을 조용히 심판하는 대심문관이며, 배를 채우기 위해 여자가, 아니 주로 그 남자가,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묻는다”(79). 요컨대 굶주림은 이들이 당면한 현실인 동시에 그들의 삶에 내재하는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 문제, 즉 과연 “사람을 먹을 수 있는가”(Can we do it?)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혹은 ‘아들’처럼 여성화된 인물들—은 환경재해로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행사하는 가부장적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한바, 이 점에서 『더 로드』는 자본주의 이후에 도래한 묵시록적 역사의 상상적 재현이며 굶주림과 폭력, 그리고 고딕적 상황을 통한 아일랜드 주제는 포스트식민주의적 상황에서 지속되는 문명의 야만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¹⁸⁾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한 끔찍한 재앙의 근원에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식인’의 폭력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굶주림에 못이겨 방금 출산한 아이를 먹어 치운 가족의 잔인한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McCarthy 198), 저택의 지하실에서 마주한 팔다리 잘린 사람들의 끔찍한 형상에서 더 극적으로 묘사된다.

냉기와 습기. 사악한 악취. 소년은 남자의 외투를 꼭 움켜 쥐었다. 돌벽의 일부가 보였다. 진흙 바다. 시커멓게 더럽혀진 낡은 매트리스. 남자는 몸을 웅크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불을 앞으로 뻗었다. 뒷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별거벗은 사람들이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으려 했다. 매트리스에는 두 다리가 허벅지까지 다 잘린 남자가 누워 있었다. 몽푹하게 낡은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냄새가 끔찍했다. 맵소사. 남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윽고 한 사람씩 고개를 돌리더니 희미한 빛을 향해 눈을 깜박였다. 살려주세요.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18) 이 점에 관해 실증적으로 접근한 선구적 연구로는 Super Forty 참조.

Coldness and damp. An ungodly stench. The boy clutched at his coat. He could see part of a stone wall. Clay floor. An old mattress darkly stained. He crouched and stepped down again and held out the light. Huddled against the back wall were naked people, male and female, all trying to hide, shielding their faces with their hands. On the mattress lay a man with his legs gone to the hip and the stumps of them blackened and burnt. The smell was hideous. Jesus, he whispered. Then one by one they turned and blinked in the pitiful light. Help us, they whispered. Please help us. (McCarthy 110)

이 장면의 참혹함은 “집안의 노예들이 한때 음식과 음료를 은쟁반에 받쳐 들고 저 판자들을 디뎠”(106)을 것이라는 역사적 상상과 이어져 이 재앙이 다른 인종에 대한 폭력적 수탈로 탄생한 미국문명의 근원적 트라우마임을 고발한다. 또한 임박한 종말을 예감하는 남자가 두려움의 근원을 두고, “죽음 때문은 아니었다. 무엇 때문인지 잘 몰랐으나 어찌면 아름다움이나 선 때문일 거라 생각”(129)하듯이, 폭력과 아름다움을 극단적으로 병치시키는 『더 로드』 특유의 고딕적 요소는 참혹한 이들의 상황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맥카시의 간결하고 서정적 문체와 극적으로 대조된다.¹⁹⁾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맥카시는 “아일랜드계라기보다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지만, “폭력과 기근을 통한 고통의 경험 같은 아일랜드적 주제를 민족주의적 프로파간다 없이 다룬다는 점”²⁰⁾에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이 보여주는 포스트식민주의적 문명비판의 특징을 드러내 준다. 맥카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아일랜드계 미국작가들은 북동부 지역의 작가와 달리 명시적으로 아일랜드성을 드러내기보다 재난의 경험과 고딕 서사의 결합을 통해 환유적으로 아일랜드성을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미

19) 잔혹한 현실과 서정적 문체를 기이하게 결합시키는 맥카시의 스타일을 호버렉(Hoberek)은 “고갈의 미학”(aesthetics of exhaustion)이라고 명명한다.

20)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과 고딕적 요소의 결합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연구로는 Ralph Pordzik 참조. 특히 332-33면.

국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문화의 계보 속에서 “미국과 영국의 낡은 스테레오타입들을 거부하는”²¹⁾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민, 정착, 백인 중산층으로의 동화와 같은 이산의 경험을 겪고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된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서의 속민성이 희박한 아일랜드계 미국 남부작가들은 특유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포스트식민주의적 입장에서 미국문명을 비판할 수 있는 ‘환유적 아일랜드성’을 주조한다. 거듭 강조하자면, 이들의 아일랜드성이 ‘환유적’인 까닭은 황폐한 남부라는 설정과 고딕적 요소의 결합이 아일랜드의 대기근의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지칭하기보다 서정적 문체와 결합된 굶주림과 식인의 모티프가 노예제를 비롯한 근대 미국역사의 어두움과 나란히 병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카시의 아일랜드성은 무엇이며, 그는 얼마나 아일랜드적인가 같은 물음들은 이 작품의 해석에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계 미국문화의 독자성을 규명하지도 못한다. 맥카시의 환유적 아일랜드성이 드러내듯, 더 핵심 과제는 아일랜드계 미국문화에 형상화된 속민적 디아스포라의 모티프들이 역사적 변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한 민족의 생존과 동화로 귀착되는지에 대한 진화론적 해명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사회 내부의 식민화와 인종주의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유력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 판별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맥카시의 성취에 대한 다음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더 로드』에 드러난 고딕 이미지들을 검토함으로써 헤게모니적이고 소비자에 기반을 둔 식민 정착자들의 지배가 앵글로 아이리쉬 전성기의 고통스런 문학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더 로드』는 ‘미국 남부 가톨릭 문학’의 특징과 결별한다. 기업자가 지적하듯, 항상 이미 주변화된 처지에서 소수의 종교적, 문화

21) 남부 지역의 지방색 작가들이 보여주는 아일랜드계 미국문화의 특이성에 대한 연구로는 Daniel J. Casey and Robert E. Rhodes 참조.

적,속민적 성향의 미국 남부문학과 멀어진다. 다시 말해, 주변화된 남부의 아일랜드계 가톨릭 전통보다는 앵글로 아이리쉬 지배층의 고딕 문화 유산과 연결되어 식민지 권력을 증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공모했는지 그 불안을 추적하는 일에 능력을 발휘할 때 아일랜드 계보를 지닌 맥카시 프로젝트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다. (Cooper 554)

여기서 ‘앵글로 아이리쉬’ 지배층의 고딕 전통은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하여 영국의 지배층으로 정착한 아일랜드인들이 만들어 낸 기제인바, 이는 맥카시의 독특성이 속민적·가톨릭적 순수성에 집착하는 낡은 ‘아일랜드성’의 고발과 연결되기보다 영국의 지배계급에 편입된 아일랜드인들처럼 미국의 중산층이 어떻게 인종적 억압의 매개자가 되는지 고발하는데 있다는 진단이다. 『더 로드』에서 이러한 ‘맥카시 프로젝트’의 환유성은 가부장적 태도를 지닌 규범적 백인 중산층의 일원인 미국 남성이 어떻게 파멸의 원인이 된 미국 자본주의의 식인성과 인종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매개하는지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식인에 대한 윤리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문명의 최후 생존자가 되지 못하며, 나아가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죽음의 현실에 남겨두는 무책임한 존재이기도 하다.²²⁾ 이민의 경험을 겪고 미국화된 아버지가 매개하는 현대 미국문명의 후기묵시록적 재앙을 문명 성립 이전의 재난의 상황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미국 자본주의를 성립시킨 폭력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더 로드』에서 환유적 아일랜드성은 바로 이 ‘굶주림’과 ‘식인’이라는 기표, 지하실에 갇힌 유령적 존재들을 통해 매개되면서 인종적 폭력의 이면에서 억압되고 배제되어 온 역사의 흔적들을 아프게 재현한다. 식민적 억압의 징표였던 ‘슬픈 아일랜드성’은 맥카시와 같은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에 의해 소수자성 및 인종차별의 지

22) 노블(Noble)은 아들의 생존에 몰두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살한 어머니의 윤리적 결단을 딜레마로 남기며 윤리적 ‘히무주의자’(nihilist)로 귀착되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대비시켜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102).

표로의 편입과 주류문화에의 동화를 거치면서 상실했던 그 급진적 이질성을 미국 남부의 재난문학에서 새로운 형태로 극화한다. 고딕적 배경 속에 귀환하는 억압된 것들의 표상으로서 ‘환유적 아일랜드성’은 그 낮익으면서도 섬뜩한 이질성을 통해 미국문학의 핵심적 특성 중 하나로 자리매김된다.

V. 나가며

재앙의 경험을 안고 출발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은 그 고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사회의 당당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했고 성공적으로 동화되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곧 지배적 주류로의 변신은 아니었다. 소수자 문학의 위치를 얻기도 했고 인종적 차별의 지배논리를 중화시키는 완충지대의 역할도 떠맡았으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물러나 주류문화의 표지 속에서 일상화되었지만, 미국사회의 어두운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는 언제나 ‘아일랜드’의 이미지가 함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령적인 존재로서의 ‘환유적 아일랜드성’은 어쩌면 아일랜드적 기원과 은유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 가장 아일랜드적 아우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의 치욕스런 경험과 재앙의 난국에서 시작한 아일랜드성의 여행은 신대륙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환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턴에서 피츠제럴드, 그리고 맥카시에 이르는 짧지만 뚜렷한 아일랜드계 미국문학의 특징은 이러한 아일랜드성의 변천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화적 산물로 남았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성공적 미국화과정과 마찬가지로 낮은 지리적 토대와 동일한 인종적 기원, 예외적 역사, 그리고 이질적 문화 토대를 지닌 아일랜드계 문학전통은 이산문화와 소수자문학을 거쳐 미국의 주류문화에 선명한 거점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러한 근

거의 확보가 곧 아일랜드성의 퇴락이나 오염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일랜드성은 이제 환유의 영역으로 재배치되었지만 억압된 것의 귀환처럼 미국문명의 한 복판에서 재난의 서사로 거듭 재출현한다. 어쩌면 환유적 아일랜드성이야말로 동화불가능한 이질성의 증상으로서 이민자의 나라로 시작된 미국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근원적 미국성의 어두운 유령일지도 모른다.

Works Cited

-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서울: 기파랑, 2008.
- An, Jee Hyun. “Nick’s Retreat: Race and Genealogy in *The Great Gatsby*.” *Journal of American Studies*. 48.2 (2016): 185-208.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2003.
- Branch, Edgar M. “Destiny, Culture, and Technique.” *University of Kansas City Review* 29 (1962): 103-13.
- Casey, Daniel J. and Robert E. Rhodes. “The Tradition of Irish-American Writers,” *Making the Irish American*, Ed. J. J. Lee & Marion R. Casey. New York: New York UP, 2006. 649-662.
- Cooper, Lydia. “Eating at the Empire Table: Cormac McCarthy’s *The Road* and the Anglo-Irish Gothic.” *Modern Fiction Studies*. 63 (2017): 547-570.
- Crowley, John. *Brooklyn*. Fox Searchlight. 2016.
- Dowd, Christopher. *The Construction of Irish Identity i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Routledge, 2011.
- Dunne, Peter Einley. *Mr. Dooley’s Philosophy*. Kessinger: Whitefish, 2008.
- Eagan, Catherine M. “Still ‘Black’ and ‘Proud’: Irish American and the Radical Politics of Hibernophilia.” *The Irish in US*. Ed. Diane Negra. Durham: Duke UP, 2006. 20-63.
- Elmore, Rick and Jonathan Elmore. “‘You can stay here with your papa and die or you can go with me’: The Ethical Imperative of *The Road*.” *The Cormac McCarthy Journal*. 16 (2018): 133-148.
- Fanning, Charles. *The Irish Voice in America*. 2nd ed. Lexington: UP of Kentucky, 2000.
- Farrell, James T. *Studs Lonigan*. Ed. Pete Hamill. New York: Library of America, 2004.
- Fitzgerald, F. Scott. *This Side of Paradise*. New York: Scribner, 2003.
- Frederic, Harold. *The Damnation of Theron Ware*. Amherst: Prometheus, 1997.
- Giemza, Bryan. *Irish Catholic Writers and the Invention of the American South*.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2013.
- Hoberek, Andrew. “Cormac McCarthy and the Aesthetics of Exhaustion.”

- American Literary History*. 23 (2011): 483-499.
- Kenny, Kevin. "Race, Violence, and Anti-Irish Senti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Making the Irish Americans*. Ed. J. J. Lee and Marion R. Casey. New York: New York UP, 2006. 364-78.
- Kunsa, Ashley. "'Maps of the World in Its Becoming': Post-Apocalyptic Naming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3 (2009): 57-74.
- Lee, J. J. & Marion R. Casey. eds. *Making the Irish American*, New York: New York UP, 2006.
- McCarthy, Cormac. *The Road*. New York: Vintage, 2006.
- Miller, Kerby A. *Emigrants and Exiles: Ireland and Irish Exodus to North America*. New York: Oxford UP, 1985.
- Mullins, Matthew. "Hunger and Apocalypse of Modernity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sympløke*. 19 (2011): 75-93.
- Negra, Diane. "The Irish in Us: Irishness, Performativity, and Popular Culture." *The Irish In US*. Ed. Diane Negra. Durham: Duke UP, 2006. 1-19.
- Noble, Alan. "The Absurdity of Hope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South Atlantic Review*. 76.3 (2011): 93-109.
- Pordzik, Ralph. "A Postcolonial View of Ireland and the Irish Conflict in Anglo-Irish Utopian Literature since the 19th Century." *Irish Studies Review* 9 (2001): 331-346.
- Ryan, James Emmett, "Review of Irish Catholic Writers," *ALH Online Review*. Series V. 2. Web.
- Schleusener, Simon. "The Dialectics of Mobility: Capitalism and Apocalypse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Studies*. 12.3 (2017): 1-14.
- Super Forty, "Violence as a Symptom of Postcolonial Diaspora and Irish American Life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Superforty*, Web.
- Wieck, Carl F. *Refiguring Huckleberry Finn*. Athens: U of Georgia P, 2000.

- 논문 투고일자: 2018. 11. 8
- 심사 완료일자: 2018. 12. 5
- 게재 확정일자: 2018. 12. 7

Abstract

**Beyond “Sorrowful Ireland”:
Metonymic Irishness in Irish-American Literature**

Woosung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categorize the so-called “Irish-American Literature” in terms of its “metonymic Irishness” manifested in the literary works of Peter Finley Dunne, F. Scott Fitzgerald, and Cormac McCarthy. Irishness has often been identified with the image of “sorrowful Ireland” with which scholars of literary field in American literature denote the specific character of Irish people and the ethnicity of Irish-Americans. Shorn of strong ethnic identity while maintaining its otherness, Irish-American literatures of the 20th century also resist accepting the negative representation of Irish identity in American culture, thus problematizing the whole logic of “identity politics” in America and criticizing the racial and even cannibalistic history of American society. Metonymic Irishness of Irish-American literature, therefore, presents the unassimilable ethnicity that repeatedly reappears as a McCarthican “apocalyptic narrative.” In this sense, metonymic Irishness could be a dark emblem of the distorted Americanness of American literature.

Key Words

Irishness, Ethnicity, Great Famine, Americanization, Cormac McCarthy